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 마량 지역경제 ‘활력소’

시마노컵 주꾸미 낚시대회로 올해 공식대회 마무리

7개 대회 1235명 참가·관광객 7000여명 유치 성과



영암, 성실·모범납세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지원 조례 제정…지역화폐 지급·표창장 수여

영암군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영암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4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영암군의회를 통과한 지원 조례는 납세자 권리보호, 성실납세문화 확산, 지방세 자주지원 안정 확보 등을 위한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정 조례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으로 나눠 구체적 혜택을 제공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전액 납부한 체납·징수수수에 이력이 없는 자로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강진군은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전면 시행하며 감염병 예방과 건강복지 확대에 앞장 서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강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준 60세 이상이던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같은 해 4월부터 확대된 무료 예방

접종을 전격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8800여명의 군민이 접종에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강진군의 선제적 추진을 계기로 전남 도내 담양, 곡성, 구례, 고흥, 장흥, 영암군 등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강진=이진복 기자 sa433225@

강진군이 최근 개최한 시마노컵 주꾸미 선상낚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피싱마스터스 시리즈 중 가을을 대표하는 시마노컵 주꾸미 선상낚시대회에 전국 낚시인 186명이 참가하며 강진 마량항을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족류 부문에서 화제가 됐다. 김해에서 온 모준형씨가 이틀간 총 7.8kg을 낚으며 1위를 차지했고, 광주에서 온 최대운씨가 7.2kg으로 2위에 올랐다. 1등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2등에게는 500만원이 전달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접수 통계를 보면 많은 참

가자가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강진을 방문했고,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한 비율도 높았다.

특히 상금 제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1~5위는 상금의 10%, 6~30위는 전액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냈다.

여기에 1000만원 상당의 행운상 추첨까지 진행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호응이 커졌으며, 참가자 모두가 행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경품도 마련했다.

강진피싱마스터스는 단순한 낚시대회를 넘어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미중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의 숙박, 식음료, 관광 소비 등으로 강진 곳곳이 활기를 띠었으며, 마량항 소속 선박 10척이 출항해 안정적인 조황을 선보이며 낚시 관광지로서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2025년 강진피싱마스터스는 올해 총 7개의 공식 대회를 모두 마쳤으며, 7일간 약 7000명의 관광객과 1235명의 참가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참가자 가운데 약 25%가 강진에서 숙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대회는 종료됐지만 오는 13일에는 ‘기관·단체 주꾸미 선상낚시대회’가 번외 편으로 진행된다. 강진군민과 강진 향우인, 관내 기관·사회단체·동호회 소속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강진피싱마스터스 홈페이지 (<https://www.mastersmgm.com/>)에서 참가 접수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해양수산과(061-430-3543)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은 “강진 피싱마스터스 대회는 올해 약 7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 마량면을 허기적으로 바꿀 다양한 대형 공모사업 선정돼 국·도비를 합쳐서 약 1000억원 이상 예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미항 마량항과 함께 강진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두루 둘러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복 기자 sa433225@

신안 청년 농부 ‘이지팜’ 스마트팜 성공 비결 공유

첨단 분무수경 기술…물 절약·고품질 유럽 상추 연중 생산

신안군 압해읍에서 최첨단 스마트팜 ‘이지팜(Easy Farm)’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농부 이지훈 대표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예비 귀농인들에게 공개했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지팜은 지난 2일 ‘2025 전남도 귀농신농 어촌 맛보기 8기’ 참가자들의 현장 견학 코스로 지정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3년 전 평택에서 신안으로 귀농한 이지훈 대표는 군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이지훈 대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이 정도 규모의 첨단 시설 구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며 “열정을 가진 후배들이 농장을 직접 보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돋는 것이 멘토로서의 새로운 역할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지훈 대표의 스마트팜은 기술 혁신과 나눔의 정신까지 실천하는 청년 농업인의 훌륭한 룰모델이다”며 “군에서도 이와 같은 청년들이 지역 농업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신안군 압해읍에서 최첨단 스마트팜 ‘이지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농부 이지훈 대표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예비 귀농인들에게 공개했다.

해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총 601억원…면적 단가 인상

해남군은 올해 1만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 농지 1만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지급단가가 5% 인상됐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과 농지 자격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검증과 대량검증을 거쳐 지금 대상자를 확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c8239@gwangnam.co.kr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증-139779